

# A Study on Sun Wen's Minshengzhuyi: Is It Utopian Socialism or Chinese-style Socialism?\*

Nam Ju Lee\*\*

Sungskonghoe University

##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re-examin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Sun Wen(孫文)'s Minshengzhuyi(民生主義) and to suggest its implications for socialist practices. To this end, I analyzed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Minshengzhuyi and the contents of its core programs, i.e. equalization of land rights and controlling capital.

Minshengzhuyi has long been defined as subjective socialism or utopian socialism in China. However, Minshengzhuyi is the most pioneering and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Sinicization of socialism. In addition, the approach of using capitalist methods for socialist construction can be said to have captured the core contents of socialist reform in current China. Therefore, some scholars also began to positively evaluate the socialist nature of the Minshengzhuyi. However, there is a limit to advancing theoretical thinking in evaluating Minshengzhuyi only by focusing on the similarity with the current Chinese official theory.

This paper argued that the notion of the double project of simultaneously adapting to and overcoming the modernity can help to more clearly grasp the present significance of Minshengzhuyi. From the perspective of double project, the contents of Minshengzhuyi, which were defined as utopian or subjective in the past, have meaning as a more realistic method of socialist construction. At the same time, it is possible to shed new light on the limitations of Minshengzhuyi. Sun Wen could not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how to form a political and social driving force that can realize Minshengzhuyi. Though Sun Wen opposed the class struggle, he did not offer a viable alternative. This is a problem that China has yet to solve. The future of China's socialist practice will also depend on how it solves this problem.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7S1A6A3A02079082).

\*\* Professor, Sungkonhoe University. Email: lee87@skhu.ac.kr

**Keywords**

Minshengzhuyi(民生主義), Controlling Capital(節制資本), Equalization of Land Rights(平均地權), Double Project of Modernity, Utopia

# 쑨원 민생주의에 대한 일고찰: 공상인가, 중국식 사회주의인가\*

이남주\*\*

성공회대

## 요 약

이 논문은 쑨원(孫文) 민생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재조명하고, 그것이 사회주의적 실천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민생주의의 형성과정 및 그 핵심 강령, 평균지권과 절제자본의 내용을 분석했다.

중국에서 민생주의는 오랜 동안 주관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로 폄하되어 왔다. 그러나 민생주의는 사회주의의 중국화의 가장 선구적이고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자본주의적 방법을 사회주의 건설에 활용한다는 접근법은 개혁개방 시기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핵심 내용을 앞서서 포착한 것이다. 그 때문에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도 민생주의의 사회주의적 성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공식 이론과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민생주의를 평가하는 방식은 이론적 사유를 진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본고는 근대, 즉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적응과 극복의 두 과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이중과제론의 문제의식이 민생주의의 현재적 의의를 더 분명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균열이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나 인류사회의 연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중과제론의 관점에서는 과거 공상적이라거나 주관적이라고 규정되었던 민생주의의 내용들이 더 현실적인 사회주의 건설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민생주의의 한계와 과제도 새롭게 조명할 수 있게 만든다. 그 주요 한계는 민생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동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것이다. 쑨원은 계급투쟁에는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이는 현재 중국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실천의 미래도 이 문제

\* 이 논문은 2017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2079082).

\*\*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메일: lee87@skhu.ac.kr

를 여하히 해결하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 주제어

민생주의, 절제자본, 평균지권, 근대의 이중과제, 유토피아

## 1. 서론 - 민생주의 연구의 현재적 의의

시진핑(習近平)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공산당(이하 공산당)은 사회주의 이념과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물론 중국에서 사회주의는 이제 수사에 불과하고 실질적 의미는 없다는 인식이 꽤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긍정적 의미이건 부정적 의미이건 사회주의는 중국의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있다(이남주 2018, 305). 19세기 초반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본격적으로 조우한 이후 중국에서는 자본에 대한 통제나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사유와 실천이 지속되어왔다. Kang Yuwei(康有爲)의 대동사상이 그 출발점이다(이남주 2020, 67-73).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최근 공산당이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일탈적 현상이 아니라 중국 현대사에서 지속되고 있는 흐름 위에 있는 현상이자 사회주의적 지향과 현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파악해야 지금 중국의 상황을, 그리고 이 상황이 만들어내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쑨원(孫文) 민생주의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조명하고 그것이 사회주의적 실천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민생주의는 사회주의의 중국화의 가장 선구적이고 대표적 사례이다. 그런데 꽤 오랜 동안 민생주의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黃彦 1993, 66). 삼민주의를 계승한다고 한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은 쑨원이 사망한 후 민생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속성을 제거하고자 했다. 1925년 출판한 “손문주의의 철학 기초(孫文主義之哲學基礎)” 등의 저작을 통해 삼민주의나 민생주의를 중국의 전통사상과 연결시켜 설명한 다이저타오(戴季陶)가 대표적이다. 중국혁명 이후 공산당 역시 쑨원의 혁명 정신과 실천은 높게 평가했지만 민생주의를 사회

주의의 주요 성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민생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자본주의적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민생주의와 개혁개방 시기에 제시된 사회주의초급단계론 사이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생주의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논의도 증가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선형적 프레임을 전제로 한 논의들이 지배적이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판별하는 기준이 문화대혁명 시기의 계급투쟁론과 계속혁명론에서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이나 중국특색사회주의론으로 변화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이론 역시 선형적 진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평가를 받아야 하는, 즉 그 미래가 다양한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이론이다.

그렇다면 논의의 초점은 쑨원의 민생주의는 특정 사회주의 이론에 얼마나 가까운가(혹은 얼마나 거리가 먼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사유와 실천에 어떤 가능성을 열었는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가에 맞춰져야 한다. 본고는 이중과제론을 참조하며 이 논의를 진행했다. 이중과제론은 세계체제로 작동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국적 차원에서는 그에 대한 적응과 극복의 이중과제를 수행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백낙청 2016). 사회주의 건설에 자본주의적 방식도 활용한다는 접근법은 쑨원의 민생주의가 주관적 사회주의로, 심지어는 반사회주의적 이념으로 규정된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쑨원의 사유와 실천은 적응과 극복의 이중과제적 인식을 선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쑨원이 사망한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의 삼민주의 혹은

1) 류쉐자오(刘学照)의 민생주의에 대한 논의도 이중과제적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쑨원의 민생주의에 대한 연구가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라는 이항대립적 틀에 의존한 분석의 한계를 돌파해 단일하고 일방향적인 사유방식을 변증종합의 복합적 사유로 전환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쑨원의 민생주의가 실업의 진흥(자본 발달)과

민생주의에 대한 전유 방식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중과제적 인식의 해체로 볼 수도 있다. 이는 근대 적응에 치중한 국민당의 길과 근대 극복에 치중한 공산당의 길의 분화로 이어졌다(백영서 2021, 20).

그리고 이중과제론적 사유는 어떤 것이 올바른 실천 방식인가에 대한 선형적 모델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사유와 실천 모두에서 수행성을, 구체적 상황에서 대한 분석을 통한 실천과제의 도출, 실천, 그리고 실천에 대한 성찰 등의 과정을 지속시키며 자본주의 극복의 길을 찾을 것을 요구한다.<sup>2)</sup> 여러 시행착오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중과제적 인식은 이러한 시행착오의 폭을 좁히고 그에 대한 더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본고의 민생주의 연구는 이 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더 효과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사유 자원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이는 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I장에서는 먼저 민생주의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고, 본고에서 논의할 민생주의 관련 주요 쟁점을 도출했다. III장에서는 민생주의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민생주의가 중국식 사회주의의 탐색의 결과임을 보이고자 했다. IV장에서는 민생주의의 주요 강령인 평균지권과 절제자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강령들이 사회주의적 기획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V장은 결론으로 이중과제론의 관점에서 민생주의를 평가했다.

---

함께 자본주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역사의 이율배반식 함의를 갖는다는 사실, 그리고 쑨원이 중국과 세계 발전의 시간차를 직시하며 중화진흥을 위해 기존의 방식을 따르는(‘从同’) 동시에 이를 초월하는 사회발전모델을 설계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刘学照 2002, 96).

2) 이 점에서 이중과제론은 엄밀한 이론(theory)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에 개입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접근법(approach)에 해당된다.

## II. 민생주의에 대한 기존 논의

공산당 담론체계에서 쑨원의 민생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레닌(Владимир Ильич Ленин)의 쑨원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되었다. 레닌은 1912년 7월 발표한 글에서 쑨원을 혁명적 민주주의자로 높이 평가했지만, 쑨원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민수주의자들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평균지권, 혹은 민생주의의 실행으로 바로 사회주의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한 쑨원의 주장이다. 레닌은 쑨원이 주관적으로는 사회주의자이지만, “유럽의 사회주의를 반동적 이론으로 개조하고, 이 자본주의를 방지한다는 반동이론에 근거해 순수하고도 분명한 자본주의적 토지강령을 제정했다”고 평가했다(列宁 2017, 430).<sup>3)</sup> 객관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산당도 이 평가를 따랐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민생주의를 체계적으로 논의한 리스위예(李时岳)는 토지강령만이 아니라 민생주의의 공상업 발전 관련 강령도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이 점에서 민생주의가 이론적으로는 반동적이라고 주장했다(李时岳 1956, 106-107).

민생주의는 공상적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레닌은 위의 글에서 “중국 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혁명을 실시하기 비교적 용이하다는 생각은 매우 반동적 공상”이라고도 주장했다(列宁 2017, 430). 마오저둥(毛泽东)도 1940년 1월 “신민주주의론”을 주장하는 글에서 민주혁명의

3) 민수주의(民粹主義)는 러시아어 народничество(Narodnism)의 번역어이다. 쑨원의 사후, 그리고 국공합작이 여전히 유지되던 1926년 라디크(Карл Бернгардович Радек, К·拉狄克)는 쑨원이 자본주의적 발전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민수주의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노동자와 농민을 조직해 자본주의와 투쟁하는 강령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러한 민생주의나 평균지권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К·拉狄克 1985).

과제를 실현하는 신민주주의혁명 단계를 사회주의혁명 단계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에 기초해 중국은 별도의 사회혁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 번의 정치혁명으로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은 “공상”이라고 비판했다(毛泽东 1991, 685). 학계에서는 리쩌허우(李泽厚)가 1956년 발표한 글에서 민생주의를 태평천국 사상, Kang여우웨이의 대동사상과 함께 근대 초기 중국에서 출현한 공상적 사회주의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다(李泽厚 1994, 348-349). 이러한 주관적, 공상적 성격을 유심론으로 비판하는 최근 논의도 있다(张海鹏 2020).

위의 논의들에서 민생주의를 주관적, 공상적, 혹은 유심론적이라고 비판한 주요 근거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평균지권이나 절제자본이 자본의 사적 소유를 폐기하는 사회주의적 강령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강령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계급투쟁, 혹은 사회주의 혁명을 경유하지 않고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사회주의의 실현이 반드시 ‘특정 형태’의 계급투쟁을 거쳐야 하는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자본의 사적 소유를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가 등의 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금은 이 반문에 공산당도 “그렇다”고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sup>4)</sup>

실제로 개혁개방 이후 민생주의의 사회주의적 성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증가했다. 후성(胡绳)은 민생주의 강령이 “명목상으로는 사회주의를 추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라는 기존 평가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신민주주의혁명을 거쳐 바로 사회주의로 나아갔던 길은 “쑨원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쑨원의 양호한 희망이 현실화된 것이다. 전면적 개혁과 대외개방정책

4) 사유제 기업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외자기업이나 국유기업보다 중국 경제성장의 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Hyuntai Lee 2020, 61-62). 최근 중국에서 사유제 기업에 대한 통제가 쟁점이 된 바 있지만, 이는 플랫폼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으며 대다수 사유제 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

은 ----- 쑨원의 사회주의사상, 그리고 국가 부강과 인민 행복에 대한 열망의 계승이자 발전이다”라고 민생주의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胡繩 1987, 9와 13).

1990년대 들어서는 민생주의와 중국특색사회주의론과 연관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더 활발해졌다. 웨이제팅(韦杰廷)은 민생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전통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주의에서 비사회주의적이고 공상적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내용들, 즉 자본주의적 수단의 활용이나 비자본주의적 발전 경로에 대한 탐색 등을 사회주의 실천에서 유의미한 시도로 평가했다(韦杰廷 1991). 황彦(黄彦)은 민생주의를 주관적 사회주의로 비판하는 것에 명확하게 반대하고, “쑨원은 20세기 초 중국인의 사회주의 이상 추구에서 최고의 성취이다. 쑨원은 중국에서 과학적 사회주의가 확립되기 이전, 맑스주의와 중국 노동자가 결합되기 이전 시기 사회주의 사상의 가장 위대한 선구”라고 평가했다(黄彦 1993). 동스다이(董四代)는 “과학적 사회주의에 가장 접근한 공상사회주의이다. 쑨원의 사회주의사상은 사회주의이론으로서 공상성이 있지만 중국이 현대화를 실현하는 길의 탐색에 있어서 깊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董四代 1998, 26). 한젠펑(韩剑锋)은 쑨원의 민생주의가 공상적, 주관적 요소가 있지만, 공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양극분화에 반대하고 다수의 행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과학적 사회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민수주의의 공허한 상상은 아니라고 평가했다(韩剑锋 2012, 2-3).

이러한 변화는 민생주의가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변천에서 갖는 역사적, 현실적 의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쑨원의 민생주의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미래가 아니라 당대에 실현할 목표로 제시했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이를 먼 미래의 일이자 기본적으로 인류 진화의 결과로 간주했던 캉여우웨이의 대동사상과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유와 실

천을 중국에서 공산당이 창당되기 거의 20년 전부터 시작했다. 즉 중국에서 사회주의 실천의 역사는 쑨원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Jiang 2012, 148). 민생주의가 실행되지 못한 구상에 머무른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민생주의는 쑨원의 소련과의 정치협력과 중국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 중 하나인 1차 국공합작에 사상적 동력을 제공했다. 공산당은 국공합작을 통해 중국 정치무대의 중심에 진입할 수 있었고, 혁명 과정에서 자신의 노선을 정당화시키는 데 쑨원의 삼민주의와 민생주의를 적극 활용했다.<sup>5)</sup>

개혁개방의 추진은 민생주의에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과 근거를 제공했다.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공산당도 사회주의에 대한 교조적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은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에서 ‘사상해방’을 강조하며 교조주의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핵심적 속성으로 “생산력 발전”을 제시하며,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건설에서 계급투쟁 중심론을 부정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중국의 현실과 민생주의 사이의 접점을 확대시켰다. 예를 들어 민생주의의 “절제자본(節制資本)” 강령은 공업화 과정에 자본의 사적 소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자본이 사회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 취지인데, 자본의 사적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 활동을 용인하거나 이를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삼으며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개혁개방 시기 방침과 공통점이 많다.

다만 민생주의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지금까지

---

5) 공산당의 삼민주의에 대한 평가는 최근까지도 계속 변화되었다. 2차 국공합작 시기 (1937~1945)에는 삼민주의를 중국혁명의 주요한 정치강령으로, 특히 항일통일전선의 정치적 기초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선전했다. 공산당은 자신들이 국민당과 달리 진짜 혹은 혁명의 삼민주의를 옹호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赫坚(2012)를 참고.

의 연구들이 민생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크게 진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 개혁개방 시기에 진행된 중국의 사상적, 현실적 변화를 근거로 민생주의 사상의 적극적 의미를 조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로 나아가기는 어려웠다. 공산당의 현재 노선과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민생주의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방법론에서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독단적 이해를 기준으로 민생주의를 평가했던 과거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개혁개방 시기 자본주의적 수단의 도입과 쑨원 민생주의 사이의 유사성을 근거로 민생주의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왜 이런 방식이 사회주의적 실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 민생주의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적 실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 Ⅲ. 사회주의 사상으로서의 민생주의

쑨원은 청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봉기(1895.10)에 실패해 영국에 망명해 있던 시절(1896.9.30. ~1897.7.1. 이 때 청조의 주런던 대사관에 억류되는 사건을 겪었다) 런던박물관에서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섭렵한 것으로 알려졌다. 쑨원 자신도 1919년 발표한 글에서 런던납치 사건 이후 영국에 머물 때 다양한 사회사상과 사회운동을 접하면서 삼민주의를 채택했다고 주장했다(孫中山 2011, 372~373). 그러나 쑨원의 사회주의 혹은 민생주의에 대한 언급은 런던시절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확인할 수 있다.

쑨원은 1903년 7월 일본에서 조직한 비밀결사 조직인 도쿄군사훈련반 선서문에 기존 흥중회의 강령인 “구제달로, 회복중화, 창립민국”(驅除撻虜, 恢復中華, 創立民國)에 “평균지권(平均地權)”을 추가했다(孫中山 1981, 224).<sup>6)</sup> 그리고 1903년 12월에 작성한 한 서한에서 “(당신이) 질문한 사회주의는 내가 깊이 생각하고 잠시라도 잊지 않으려는 것이다. 나의 주장은 평균지권에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지금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일이다”고 언급했다(孫中山 1981, 228). 이 서한은 1903년 9월 6일 발송된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늦어도 1903년에는 쑨원이 자신의 사회주의 사상, 즉 민생주의에 대한 대략적 구상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민보(民報) 창간사(1905.11.26.)에서 쑨원은 처음으로 민족, 민권, 민생 등을 삼대주의로 지칭하고 사회주의 대신 민생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孫中山 1981, 288).<sup>7)</sup> 1906년 12월 2일 민보 창간 1주년 기념 연설에서 쑨원은 외국의 “사회당이 민생주의를 제창한 이유는 빈부의 불평등을 법으로 정해 규제하려는 것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따르는 자가 점차 증가하여 마침내 매우 번창한 일종의 과학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 중에는 여러 유파가 있는데, 자본가를 소멸시켜 국유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 빈민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줘야 한다는 주장, 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 등 여러 설이 분분하다”며 사회주의에 다양한 유파가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孫中山 1981, 327). 이 발언은 쑨원이 민생주의를 사회주의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6) 이는 1905년에 결성된 동맹회의 강령이 되었다. 펑즈여우(馮自由)의 회고에 따르면 동맹회 결성 때 서약에 평균지권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쑨원이 “중족 정치 사회 혁명을 한번에 완성해야 한다(畢其功於一役)”고 설득해 통과될 수 있었다(馮自由 1976, 140).

7) 펑즈여우는 삼민주의라는 표현은 자신이 사장을 맡던 홍콩의 중국일보사가 민보 판매를 대행할 때 만든 선전문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馮自由 1976, 141-142).

쑨원은 사회주의 실현에 매우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1903년 12월 서한에서 “빈부의 차이가 구미처럼 부자는 국가와 대적할 정도의 부를 갖고 가난한 이는 송곳을 꽃을 땅도 없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방안은 구미와 비교하면 쉽다”고 주장했다(孫中山 1981, 228). 1905년 5월 벨기에 브뤼셀의 제2 인터내셔널 집행국을 방문해 나는 대화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 벨기에 사회당 기관지 “인민보(Le Peuple)”는 중국의 사회주의자(쑨원)가 “유럽의 생산방식을 채용하고 기계를 사용하고자 하지만, 그것의 여러 폐단은 피하고자 한다. --- 다르게 표현하면 중세기의 생산방식에서 바로 사회주의 생산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본가의 착취를 받는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당신(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이 여전히 당신들의 기획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순수한 집체주의 제도하에서 생활할 것이다”라는 쑨원의 발언도 인용했다(孫中山 1981, 273). 쑨원의 민보 발간사에서도 사회혁명을 거치지 않고 한 번의 정치혁명으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구상(舉政治革命 社會革命畢其功於一役)이 제시되었다(孫中山 1981, 289). 민보 창간 1주년 기념 연설에서는 “장래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서야 대과 괴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러한 상황이 출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孫中山 1981, 327). 중국은 계급분화나 계급투쟁을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쑨원의 핵심 주장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는 레닌이 쑨원을 주관적 사회주의로 비판했던 주요 근거 중 하나이었다.

이 시기 쑨원은 민생주의, 사회주의, 평균지권 등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王德昭 2011, 90). 따라서 쑨원의 사회주의나 민생주의에 대한 설명은 곧 평균지권에 대한 설명이기도 했다. 쑨원은 민보 창간 1주년 기념 연설에서 “구미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단언하고 “지가 정하기(定地價)”를 민

생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 사실상 유일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즉 지가를 정한 이후 개발에 의한 지가상승분을 세금으로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빈부격차를 방지하고 발전(공업화)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쑨원은 아직 발전되지 않아 지가가 낮은 중국이 지가가 이미 많이 오른 구미국가들에 비해 이 방법을 실시하기 용이하고 효과도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孫中山 1981, 329).

민생주의와 평균지권에 대한 반대론도 적지 않았다. 동맹회 내부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있었고, 1905~1906년 민보와 신민총보(新民總報) 논쟁에서도 민생주의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 논쟁은 량치차오(梁啓超)가 신민총보를 통해 혁명파의 공화혁명론, 정치혁명과 사회혁명 병행론 등을 비판하고 이에 민보가 반론을 펴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량치차오는 혁명파의 사회혁명론을 폭력적 방식의 토지국유론으로 규정하고 이는 폭동, 열강의 간섭, 그리고 중국의 분열이라는 연쇄반응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堀川哲南 1974, 75). 이 비판은 혁명의 필요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앞선 것(특히 민생주의의 토지국유론을 폭력적 사회혁명론으로 규정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와 관련해 의미 있는 비판도 있었다. 량치차오는 사회주의가 이상이 될 수는 있지만 상당 기간 중국에게 불필요하고 부적합한 이념이라는 입장에서 자본가의 성장이 노동자 보호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보는 중국은 빈부격차를 줄이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으며 평균지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논지로 반박했다(Lai and Trescott 2005, 1953-1955; 조경란 2003, 89-94). 이 논점은 이후 중국 사회주의 관련 논쟁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했다.

1906년 이후에는 상당 기간 쑨원은 민생주의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혁명, 특히 무장봉기를 위한 준비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신해혁명 이후에야 쑨원은 민생주의를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다. 1911년 10월 10일 시작된 신해혁명을 미국에서 맞이했던 쑨원은 유럽을 거쳐 12

월 25일 상하이로 귀국했다. 12월 29일 상하이의 중국동맹회 본부에서 진행된 환영대회 연설 중 “현재 민족주의, 민권주의 두 가지는 곧 실현되고 큰 성공을 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민생주의는 거의 착수하지 못했다. 앞으로 중국은 우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孫中山 1981, 574). 1912년 4월 1일 난징에서의 연설에서는 민생주의를 미래의 과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문명이 발달되지 않고 자본가도 출현하지 않은 중국에서 민생주의를 실현하기 더 쉽고 미리 이를 실현해 폭력적 사회혁명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孫中山 1982, 319).

이 시기 민생주의의 새로운 특징은 자본 문제를 강조한 것이다. 쑨원은 1911년 12월 30일 사회당 본부장이었던 장강후(江亢虎)를 만났을 때, 장이 평균지권이 사회당의 주장과 같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완전한 사회주의자로 비교적 실행하기 쉬워 그것을 먼저 제시한 것이며, 귀당과 토론할 필요가 있는 다른 것들이 매우 많다”고 밝혔다(孫中山 1981, 579-580). 그 이후 민생주의에 대한 쑨원의 설명에 따르면 ‘다른 것들’의 주요 내용은 공업화와 자본 공유와 관련된 구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4월 난징 연설에서 “국가가 부강해지면서도 자본가의 독점이라는 폐단을 방지하는 방법은 사회주의밖에 없”기 때문에 동맹회 정강이 국가사회주의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sup>8)</sup> 철도, 전기, 수도 등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孫中山 1982, 323).

민생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더 구체화되었다. 1912

8) 이 시기 중국에서는 국가사회주의에 호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1930년대 파시즘으로 이어진 연결되는 국가사회주의가 아니라 위로부터 그리고 온건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주의를 의미했다. 쑨원은 독일(비스마르크 시대)의 국가사회주의를 모델로 많이 언급했으며, 량치차오도 한때 국가사회주의는 중국에서 채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조경란 2003, 96-99).

년 10월 14~16일 진행된 중국사회당에서의 연설이 대표적이다. 이 연설에서 쑨원은 사회주의 분파를 공산사회주의, 집산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무정부사회주의 등 네 개로 나누었다. 그런데 국가사회주의는 집산사회주의에 속하고 무정부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회주의를 집산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두 분파로 구분했다고 할 수 있다. 쑨원은 이 중 집산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현 시기의 유일한 임무라고 주장했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상승(上乘)”이지만, 공산주의는 도덕지식이 완벽해져야 실현될 수 있으며 현재는 국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산사회주의를 통해 민생을 보장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孫中山 1982, 508). 그리고 맑스의 자본공유론을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토지공유론과 함께 “사회주의의 뚜렷한 진수”라고 주장했다(孫中山 1982, 518). 하지만 쑨원은 맑스나 조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수정해 민생주의의 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맑스와는 달리, 계급투쟁에 대한 반대의 연장선에서 인도주의, 특히 박애를 사회주의의 진수라고 주장했다(孫文 1982, 509-510).

쑨원이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당 개조 및 국공합작을 추진하면서 민생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관계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1917년 러시아혁명이 성공하면서 소련의 소비에트체제와 맑스레닌주의가 세계혁명운동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소련은 쑨원을 잠재적 협력대상으로 고려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는데, 쑨원도 미국이나 영국 등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922년부터 소련과의 관계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 결과 1923년 1월 26일 ‘쑨원-요페 연합선언’이 발표되었고,<sup>9)</sup> 1924년 1

9) 이 과정에서 쑨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으로부터 물질적 지원이었다. 그 이전까지 쑨원은 서구 열강의 지원에 대한 기대, 소련의 베이징정부(혹은 다른 군벌)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로 양자관계에 신중하게 접근했다(이승휘 2018, 11장~13장).

월 국민당 개조를 통한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sup>10)</sup> 그런데 국민당 내부의 우파는 소련식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산당과의 합작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공산당은 국공합작 내에서 맑스레닌주의 선전을 더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쑨원은 민생주의를 포함한 자기 사상의 독립성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쑨원의 요구에 따라 ‘쑨원-요페 연합선언’ 1항은 “쑨원은 공산조직, 소비에트조직은 모두 중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에는 이러한 공산제도 혹은 소비에트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페는 이러한 인식에 완전하게 동감했다. 동시에 중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전히 민국 통일의 성공과 국가 독립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孫中山 1985b, 51-52). 쑨원이 공산주의나 소비에트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1923년 11월 16일 이노우에 쓰요시(犬養毅)에게 보낸 편지(1923.11.16.)에서 “소비에트주의는 공자가 이야기한 대동(大同)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孫中山 1985c, 405).

그렇지만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았고, 민생주의를 더 성숙한 사회주의 사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1921년 3월 6일 국민당의 광저우 판사처 개소식에서 쑨원은 “민생주의는 현재(時下)의 사회주의”이며 “사회주의를 민생주의로 번역한 것이 의미상에서 더 적절하다”라고 주장했는데(孫中山 1985a, 476), 이 주장은 민생주의가 단순히 사회주의 한 유파가 아니라 가장 발전된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의미

10) 이승휘는 일반적으로 국민당 개조로 지칭되는 과정을 1923년 11월 개조와 1924년 1월 개조로 분류해 논의하면서 양자의 삼민주의에 대한 해석에 단절적 측면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승휘 2018, 436과 487-497). 민족주의와 민권주의의 경우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민생주의의 경우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의 민생주의에 대한 설명도 연속성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도 내포하고 있다.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서의 민생주의에 대한 설명(1924.1.21.)에서는 민생주의를 공산주의도 포함하는 사상으로 설명했다(孫中山 1986a, 112). 즉 민생주의의 독립성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합리성을 소화시킨 더 성숙한 사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1924년에 진행된 민생주의 강의 중 1강(1924.8.3.)에서도 민생주의가 소련식 혹은 맑스레닌주의적 방식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바람직한 사회발전 방안이라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했다.<sup>11)</sup> 그 핵심은 민생주의가 계급투쟁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쑨원은 맑스가 물질을 역사의 중심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사회문제가 역사의 중심이고 사회문제는 민생을 중심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민생주의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孫中山 1986a, 365). 또한 계급투쟁은 사회의 원동력이 아니라 사회병리적 현상이며, 경제문제는 사회혁명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 방식의 사회개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孫中山 1986a, 369). 평균지권과 절제자본이 그 방법이다. 쑨원은 제2 인터내셔널의 의회진출 전략이나 소련에서 1921년부터 시장과 사적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신경제정책(Нов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NEP)을 계급투쟁과 사회혁명, 즉 맑스주의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이고 민생주의가 더 적절한 방법임을 입증하는 사례로 제시했다(孫中山 1986a, 371-372와 378).

이렇게 보면 민생주의의 핵심 주장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매우 뚜렷한 연속성이 있다. 중국에서는 민생주의를 포함해 삼민주의가 국공합작을 거치면서 더 체계적이고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사상으로 발전

11) 쑨원은 국공합작 이후 국민당의 사상을 자신의 삼민주의로 통일시키기 위해 1924년 1월부터 8월까지 삼민주의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민족주의와 민권주의는 각각 6강으로 마무리되었으나 민생주의는 4강까지만 진행된 후 중단되었다.

되었다는, 특히 민생주의가 맑스레닌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들이 적지 않다(葛建廷 2010, 203).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의 구분도 이를 위한 것이다. 공산당은 소련과의 연합(聯俄), 공산당과의 연합(聯共), 노동자와 농민 지원(扶助農工) 등을 신삼민주의의 핵심 요소로 강조했다. 그러나 이 변화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삼민주의, 특히 민생주의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楊奎松, 2008, 41). 대부분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이었다(李楊 2013). 그리고 연속성의 핵심은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중국적 길의 모색에 있었다.

이러한 모색, 특히 계급투쟁을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쑨원의 주장은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삼아 창당한 공산당의 노선과 상충하는 것이었고 이 점이 오랜 동안 민생주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공산당도 맑스레닌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강조하면서도 그 실현 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창조적 시도를 해왔다. 혁명과정에서 마오저둥노선, 문화대혁명, 개혁개방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 출발점에 쑨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쑨원에 의한 사회주의의 변용은 반동적 이론을 낳은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사유의 공간을 넓힌 것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점을 평균지권과 절제자본 강령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다.

#### IV. 민생주의의 주요 강령: 평균지권과 절제자본

평균지권은 1905년 동맹회 강령에 포함되었고, 절제자본은 신해혁명 이후부터 민생주의의 주요 강령으로 제시되었다. 1923년 1월 1일 발표된 “중국국민당당강”은 민생주의의 주요 강령으로 국영실업, 평균지권,

화폐개혁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국영실업은 “국가의 중대 규모의 산업은 전체 국민에 속하며 정부가 경영하고 관리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sup>12)</sup>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선언(1924.1.23.)은 평균지권과 절제자본을 민생주의의 중요 원칙으로 제시했다(孫中山 1986a, 120). IV장에서는 이 두 강령이 사회주의 기획으로서 갖는 의미를 평가했다.

## 1. 평균지권

쑨원은 1899년 량치차오와의 대화에서 농민의 어려움, 특히 과도한 소작료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를 국유로 하고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에게만 토지를 제공해야 한다(必能耕者而後授其田)고 주장했다. 1901~2년 일본에서 장타이엔(章太炎), 친리산(秦力山) 등과 토지문제를 논의할 때도 토지점병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다(沈渭濱 2007, 70).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바로 사회주의 기획과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전통적 토지개혁 사상이 이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I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쑨원은 1903년 평균지권을 처음 천명했는데, 늦어도 이때부터는 토지개혁 구상이 사회주의 기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라 다쿠슈(伊原澤周)는 1899년의 토지국유에 대한 소박한 견해가 1903년 평균지권 강령으로 나아가는 데 일본에서 토지소유의 평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던 미야자키 민조(宮崎民藏) 등과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伊原澤周 1991, 33-34와 39). 그러나 토지소유 평등론과 평균지권의 내용에 차이가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평균지권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헨리 조지의 토지론, 특히 단일세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沈渭濱 2007, 72). 쑨원 자신도 평균지권론을 주로 조지의 학설과 연관시켜 설명했다.<sup>13)</sup>

12) 화폐개혁은 경제관리에서 화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와 관련한 강령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단편적이며 민생주의의 취지와 연결되는 점도 부족해 이 글에서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 모순된 측면이 있는 학설들을 동원해 평균지권의 내용을 구성했기 때문에,<sup>14)</sup> 평균지권에 대한 쑨원의 설명에 혼란이 적지 않다. 가장 핵심적 쟁점은 평균지권이 토지국유나 경자유전 등의 토지 소유제 개혁을 포함한 방안인지, 아니면 토지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통해 발전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에 그치는 것인지에 있다. 1905년 제2 인터내셔널 집행국을 방문했을 때의 발언을 소개한 보도에는 토지의 공공소유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1906년 “중국동맹회혁명방략·군정부선언”에서는 “평균지권은 문명의 복리이고 국민은 평등하게 그것을 누린다. 사회경제조직을 개량할 때 모든 지권을 정한다. 지금의 지가는 소유자에게 보장하고, 혁명 후 사회의 개량과 진보에 따라 증가한 지가는 국가에 귀속시켜 국민이 공유하게 한다”며 처음으로 “지가 정하기”를 평균지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고, 토지소유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孫中山 1982, 297). 민보 창간 1주년 기념 연설에서 이 구상을 더 상세히 설명했다. 그런데 지가 정하기 방안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주장에서 유래된 것이다. 밀은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몫과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토지가치 상승분 중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적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위해 기준 지가를 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처럼 토지국유에서 정지가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평균지권으로의

- 13) 쑨원은 1896년 6~9월 사이에 미국에 체류한 바 있는데, 당시 조지의 활동과 학설이 미국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 쑨원도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내에서도 1894년 조지의 학설이 “만국공보(萬國公報)”에 처음 소개된 바 있고, 1899년에는 조지의 저서인 “진보와 빈곤”의 일부가 같은 잡지에 번역 게재되었다(夏良才 1986, 43-48). 이 때 캐나다 선교사 마린(William E. Macklin)이 조지의 학설을 중국에 전파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王宏斌 2000).
- 14) 후한민(胡漢民)과 왕정웨이(王精衛)는 1907년 발표한 글(民意, “告非難民生主義者,” 『民報』 12號)에서 평균지권 사상을 설명하면서 “나는 여러 학설들에 대해 숙고하고 취사선택했다(吾對此數家之言, 將有斟酌取舍)”는 쑨원의 말을 인용했다(王德昭 2011, 97에서 재인용).

전환은 토지 문제에 대한 인식의 후퇴로 해석되기도 했다. 셴웨이빈(沈渭濱)은 정지가 방안을 동맹회 내부의 민생주의나 평균지권 주장에 대한 반대론을 설득하기 위한 양보로 해석했다(沈渭濱 2007, 72~74). 그러나 쑨원의 평균지권은 이 양자를 결합시킨 구상으로 봐야 한다. 동맹회의 기관지인 민보는 계속 토지국유론을 선전했다. 민보는 마지막 면에 ‘본사간장(本社簡章)’이라는 제목으로 회칙을 게재했는데, 여기에 제시된 민보의 여섯 가지 이념에 토지국유가 포함되었다.<sup>15)</sup> 후한민(胡漢民)은 토지국유를 인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사용권에 해당하는 다른 권리만 인정하는 것으로 설명했다(胡漢民 1906, 11-14). 민보 4호에 게재된 펑즈여우의 글은 평균지권을 토지국유(land nationalization)와 같은 의미로 제시하고, 그 핵심 요소를 공전(公田, 광산, 도로, 삼림 등의 공적 소유)과 단일세로 제시했다(馮自由 1906, 18-19). 뿐만 아니라 “토지국유의 단일세론”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馮自由 1906, 26). 따라서 쑨원의 평균지권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지만, 토지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는 것은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지대를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헨리 조지의 주장과 유사하다(정태욱 2015, 205). 토지 문제를 현대 사회의 가장 근본적 문제로 인식한 점과 다른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토지세만으로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도 조지의 단일세론을 수용한 것이다.<sup>16)</sup>

주홍위안(朱宏源)은 토지국유와 단일세는 각각 헨리 조지가 최선책

15) 민보의 6대 주의를 열악한 현 정부의 전복(顛覆現今之惡劣政府), 공화정체 건설(建設共和政體), 토지국유(土地國有), 세계의 진정한 평화 유지(維持世界之真正和平), 중일 양국 국민의 연합 주장(主張中國 日本兩國之國民的聯合), 세계 열국의 중국 개혁사업 찬성 요구(要求世界列國贊成中國之革新事業) 등이다.

16) 폴 트레스콧(Paul Trescott)은 쑨원에 대한 헨리 조지의 영향이 토지사상에 제한되지 않고, 중국 문제에 대한 인식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쑨원의 멜서스론(인구과잉론)에 대한 비판이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흥미롭다(Trescott 1994).

과 차선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병행될 수 없는 방안이고, 쑨원의 단일세에 기초한 평균지권 방안은 재정개혁에 불과하고 사회혁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朱澐源 1985, 222~223). 실제로 쑨원은 신해혁명 이후에 지가의 1/100이나 1/200의 세금을 부과하는 훨씬 온건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孫中山 1982, 321과 371).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지가 정하기 방안이나 단일세 주장이 토지국유와 상충하지 않는다. 쑨원도 이를 토지국유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방안으로 인식했다. 특히 1912년부터 지가 정하기 방안에 국가가 정해진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시켰다.<sup>17)</sup> 토지국유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을 평균지권 구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쑨원은 1912년 5월 4일 광주의 언론계 환영회에서 지가에 따른 세금 부과(照價抽稅)와 토지국유(지가에 따른 토지수용, 照價收買)의 제도가 있으면 “모두 국가 소유로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孫中山 1982, 389). 또한 토지의 가치 상승분을 모두 국가 소유로 한다는 원칙적 입장도 계속 밝혔다. 1924년 민생주의 강연 중 2장에서 지가 정하기 방안을 설명하면서 토지가격을 신고한 이후에 발생하는 지가의 상승분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주장했다(孫中山 1986a, 389). 즉 지가 정하기 방안은 조세정책에 그치지 않고 토지 소유제 개혁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획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 방안을 실행할 때 예상되는 정치적, 경제적 제약으로 이 원칙이 어느 수준에서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평균지권 구상의 더 중요한 문제는 농민에게 호소력이 약하다는 데

17) 국가의 토지 매수권 방안은 1912년 4월 1일 난징 연설에서 처음 제시되었다(沈渭濱 2007, 74). 쑨원은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칠 경우 부자들이 몇 푼의 세금만 더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계약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욱은 이 방안은 독일이 중국 칭다오 점령 이후 실행한 정책 중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매매 가격을 낮게 신고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 매매가격으로 행정 당국이 우선매수권을 갖도록 한 방안을 참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정태욱 2015, 201~202).

있었다. 쑨원은 중국에서는 대토지 소유자가 부재하고 기껏해야 소지주들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토지의 공평한 분배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중국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농민은 토지 소유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고, 혁명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대하는 데 토지 분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쑨원은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경자유전론을 주장했다(민생주의 3강중). 거젠팅(葛建廷)은 경자유전 방안을 평균지권 사상과는 다른 맥락, 즉 공산주의적 함의를 갖는 민생주의 최후 단계에 부합하는 토지개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즉 평균지권은 주관적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지주나 자본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상이고, 경자유전은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방안이자 민생주의의 단절적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葛建廷 2010, 213-214).

그러나 쑨원은 경자유전에 대해 설명할 때 농민이 자신의 생산물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농민을 정치적 주체로 형성하는 데 갖는 의미는 언급하지 않았다(孫中山 1986a, 399-400). 뿐만 아니라 경자유전은 사적 소유를 더 공고하게 확립하는 것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이상에 더 접근한 방법은 아니다. 이는 정치적 동원과 혁명 주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었다. 쑨원은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전된 논의나 의미 있는 실천을 진행하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사회혁명에 부정적이었던 쑨원의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공산당과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공산당은 지주 토지를 몰수해 토지분배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계급투쟁에 부정적 태도를 취했던 쑨원은 토지를 몰수하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가 대지주의 토지를 유상으로 구매해서 농민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지만, 이에는 정치적 제약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

사회주의 기획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의 결여는 쑨원 민생주의와 혁명노선의 주요 한계이었고 공산당의 혁명노선과의 중요한 차이점이었다. 그러나 평균지권 강령을 주관적이라거나 공상적이라고 비판하고 이 구상이 갖는 긍정적 요소를 부정하는 것은 객관적 평가로 보기 어렵다. 평균지권은 사회주의 이상을 중국 현실과 결합시키는 길을 연 사유 실험이라는 점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 기획에서 토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내용적으로도 현실적 의미가 있다. 중국에서 혁명 이후 토지 소유가 집체화되었지만,<sup>18)</sup> 개혁개방 이후 다양한 토지 사용권 인정은 빈부격차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19)</sup> 이는 중국 사회주의 운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발전 과정에서 토지 가치의 증가를 공공 이익의 증가로 이어지는 방안을 찾는 데, 쑨원의 평균지권은 여전히 중요한 사상 자원이 될 수 있다.

## 2. 절제자본

쑨원은 신해혁명 이후 자본 문제를 민생주의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 자본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06년 민생주의를 설명한 평즈여우의 글은 평균지권에 대한 설명과

18) 공산당은 1949년부터 1952년 사이에 경자유전의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토지개혁을 진행했으나, 1953년부터 1956년까지 농촌에서 토지소유의 집체화를 추진했다. 형식논리적으로만 보면 중국공산당은 경자유전에 대한 농민의 열망을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물론 토지개혁에서 토지소유의 집체화, 즉 토지 소유의 사회주의 개조로의 전환은 경제,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남주(2010)를 참고.

19) 토지소유와 생산의 집체화가 농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에 따라 개혁개방 이후 개별농가에 토지사용권이 부여되었다. 법적으로 토지의 집체소유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토지사용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양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준소유권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도시의 경우는 토지와 주택 사용권을 더 강하게 보장하고 있어 그 가격의 상승이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함께 “공익에 관련된 권리는 한두 사람에게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편통신, 토지, 철도, 수운, 연초, 은행 등을 그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제시했다(馮自由 1906, 13). 그리고 1907년 민보에 발표된 “민생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고함(告非難民生主義者)”이라는 글도 장래에는 토지국유와 함께 대자본 국유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토지는 이미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반면에 자본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문제를 더 중요하게 제기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王德昭 2011, 105에서 재인용).

신해혁명 이후 쑨원은 공업화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민생주의에 부합하는 공업화 방안을 모색했다. 쑨원은 1912년 4월 1일 난징 연성에서 공화정이 수립된 이후 실업(industry의 번역어)이 발전하면 나타나게 되는 자본가의 독단이라는 폐단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방법은 ‘사회주의’ 이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체의 주요 산업, 즉 철도, 전기, 수도 등의 국유화를 주장했다(孫中山 1982, 323). 1912년 10월 중국사회당에서의 연설에서는 산업발전에 따른 대자본가의 출현과 독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본공유를 제시했다. 쑨원은 자본공유를 통해 국가가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교육, 양로, 의료 등의 복지에 지출하는 것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孫中山 1982, 520-524). ‘자본공유 -> 주요 산업의 국가 소유 및 경영 -> 자원확보 -> 복지보장’이 쑨원이 공업화와 민생주의를 결합시키는 기본 구상이었다.

중국의 정치정세가 악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했는데, 국민당 개조를 진행하면서 절제자본을 주요 강령으로 제시했다.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선언(1924.1.23.)에서는 “독점적 성격이 있거나 규모가 너무 커 사적 자본이 운영하기 어려운 은행, 철도, 수운 해운 등은 국가가 경영관리하며 사적 자본이 국민의 생계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절제자본의 요지이다”라고 설명했다(孫中

山 1986a, 120). 이러한 설명은 평균지권보다 훨씬 명확하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다. 그러나 절제자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다음 세 가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절제자본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취지를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쑨원은 생산능력이 낙후된 중국의 상황에서 절제자본만으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자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孫中山 1986a, 391). 절제자본과 국가자본의 형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쑨원이 절제자본을 일반적 방침으로 언급할 때는 이 두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둘째, 절제자본은 자본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지 않는다. 쑨원은 이 강령을 소련의 신경제정책과 비교하며, 맑스의 뜻은 따르지만 맑스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맑스의 주장처럼 자본가 계급을 소멸시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자본의 축적과 확대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민생주의, 즉 사회주의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孫中山 1986a, 392-393). 대자본가가 출현하지 않은 중국에서는 이 과정이 자본가 계급과의 충돌을 피하며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혁명을 거치지 않고 민생주의,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쑨원의 입장이 여기서도 다시 확인된다.

셋째, 절제자본과 문호개방정책과의 관계이다. 1905~1907년 ‘민보-신민총보’ 논쟁에서도 외자에 대한 태도가 쟁점의 하나이었는데, 당시에 도 민보 측은 외자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sup>20)</sup> 신해혁명 이후에는 쑨원은 외자 이용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1912년 4월 1일 난징 연

20) 량치차오는 사회혁명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과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정책과 외자에 대한 통제를 주장했다. 이에 민보 12기 게재된 “민생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고함(告非難民生主義者)”에서 “외자가 중국에 들어온다면, ----- 우리는 이를 환영해야 한다. 량치차오는 국제경제상황을 전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Lai and Trescott 2005, 1053~1055).

설에서 “국가가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지만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는 외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철도건설을 그 핵심으로 제시했다(孫中山 1982, 321~322). 철도가 공업화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쑨원은 신해혁명 1주년 때 한 영자지에 기고한 “중국의 철도계획과 민생주의”(1912.10.10.)에서 10년 내에서 20만 km 건설 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외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孫中山 1982, 487-493). 1912년 10월 12일 상하이 언론계 환영회 연설에서는 철도 건설에서 외자 이용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문호개방정책(외자 이용)을 광산 개발 등 다른 영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孫中山 1982, 496-501). 외자 이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차관 도입보다 외국 자본이 직접 철도 등을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철도 20만 km 건설 등의 구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외자를 도입하는 것 이외에 없었다. 이러한 논리에 기초해 작성된 것이 “실업계획(實業計畫: 物質建設)”이다.<sup>21)</sup> 대규모 철도, 도로, 운하, 항만, 철강 등 대공장 등을 외자 도입을 통해 건설하고자 한 구상이다. 쑨원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에서 생산능력 과잉 문제를 중국시장에서 해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외국에 제시했다(孫中山 2011, 388-389). 그런데 열강의 침략에 시달렸던 중국에서는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다. 쑨원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산업의 빠른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열강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힘, 특히 무력에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

21) 영문(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China)으로 1919년부터 나뉘어 발표되었고, 중문판도 그에 이어 발표되었다. 중문판 전문은 1921년 10월에 발표되었다. 1922년에는 “민권초보(民權初步: 社會建設)”, “손문학설(孫文學說: 心理建設)”과 함께 묶여 “건국방략(建國方略)”으로 출판되었다.

즉 빠른 건설을 통해 국가의 힘이 강해지면 열강의 지배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국가의 힘이 약하면 자신이 건설한 철도도 열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외자 도입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국의 노동자의 이익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호개방을 통해 공상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의 실업 계획에서는 이 주장을 “외국의 자본주의로 중국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이 두 가지 인류 진화의 경제역량을 조화시켜 서로 도움이 되게 하고 장래의 세계문명 건설을 촉진하고자 한다”라고 요약했다(孫中山 2011, 388-389). 1924년 민생주의 2장에서는 “중국은 외국에서 이미 축적된 자본을 도입해 미래의 공산세계를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절반의 노력으로 두 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다(孫中山 1986a, 393).

쑨원이 제시한 건설계획에는 19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던 푸동개발, 산샤댐 건설, 티베트철도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대한 비전이지만 당시 자본과 기술 조건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었던 구상이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절제자본은 산업발전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다. 쑨원은 자신의 구상에 따라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면 철도, 광산, 토지에서 나오는 “국가 수입이 남아 사용할 데가 없는 것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孫中山 1982, 323), 중국이 10년 내에 세계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孫中山 1985c, 119). 그렇지만 쑨원의 기대와는 달리 이 구상에 관심을 표명한 외국 정부나 자본은 없었다. 이 경험이 1920년대 들어 쑨원이 소련의 지원에 기대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절제자본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발전 강령인가, 사회주의 강령인가라는 논란이 있었다. 과거에는 이 강령이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강령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지금은 사적 자본의 용인이나 외자 도입을 주장했다고 자본주의적 강령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쑨

원의 절제자본 구상은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과는 충돌했지만, 공산당이 현재 주장하는 사회주의 모델과는 상충하지 않는다. 나아가 쑨원이 현재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의 핵심 내용을 선취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평균지권에 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계급투쟁을 거치지 않고도 자본가계급을 통제하며 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 V. 쑨원의 민생주의와 이중과제

민생주의는 중국의 근대국가 건설 구상에 사회주의적 사유가 기입된 최초의 사례이었다. 자본주의 극복의 지평을 제시했지만 이를 미래의 기획으로 미룬 강여우웨이와 구별된다. 쑨원의 사회주의에 대한 모색이 초보적 수준과 구상에 머물렀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민생주의는 저발전 국가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선구적 모색이었다. 따라서 지금 공업화를 주요 과제로 추구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도 현재적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주의 실천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길을 제시했다. 공산당도 1930년대 후반에 가서야 독자적인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사상을 형성할 수 있었는데, 그 대표적 성과인 신민주주의혁명론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활용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쑨원의 사회주의에 대한 모색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었다.<sup>22)</sup> 우리 역사에서도 조소앙이

22) 마오저둥은 신민주주의론에서 신민주주의 경제와 관련해 “(절제자본 강령은) 국민당 제

같은 맥락에서, 그렇지만 독자적 사유과정을 거쳐 구상한 삼균주의를 제시한 바 있다(백영서 2022, 240-241). 이 점에서 쑨원의 사유는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이 문제로 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응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민생주의는 구상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주의 실천의 지평을 넓혔다. 개혁개방 시기 민생주의의 핵심 내용들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 공업화 추진에 외자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와의 관계에서 쑨원의 독창적 접근이었고 개혁개방의 주요 전략이 되었다. 토지문제와 관련해서 발전의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만 귀속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한 사유는 중국의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공산당이 공동부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구하는 것도 길게 보면 쑨원 민생주의에서 시작된 모색에 연장선 위에 있는 실천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색은 최근 균열이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나 인류 차원의 연대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고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더 따져볼 문제는 쑨원은 왜 중국의 낙후된 현실에서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 사회주의라는 사상자원을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는가라는 문제이다. 당시 쑨원 등의 비유럽권 개혁사상가들의 경우에는 근대의 성과에 감명을 받았지만 이와 함께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의 여러 문제, 유럽 내의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식민주의 문제도 같이 목격하면서 자본주의 극복에 대한 사유로 나아갔다. 이러한 상황이 자본주의의 성취에 적응하면서(혹은 이를 소화시키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중과제론적 문제의식이 예민하게 발동되었던 주요 배경이었다.<sup>23)</sup>

1차 전국대표대회선언 중의 장엄한 성명이며, 신민주주의공화국 경제구상의 정확한 방침이”고, 경자유전을 실행해야 하며 “이것은 평권지권 방침이다”라고 천명했다(毛澤東 1991, 678-699).

물론 이러한 모색이 기댈 수 있는 선행 모델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업화가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상황에 그 이익을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회주의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쉰원의 생각은 공업화를, 그리고 공업화와 민생주의의 연관성을 지나치게 낙관한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 태도는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 맑스에 의해 공상적 사회주의자로 규정되었던 이들에게도 발견된다. 그리고 마오저동의 대약진운동도 이러한 발상에 따른 것이고 이는 큰 실패로 이어졌다. 지금도 사회주의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사유에 공상적 혹은 유토피아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비현실적이라는 부정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도 갖는다. 폴 뤼콕르(Paul Ricœur)는 맑스주의적 전통에서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모두를 비과학적이고 현실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을 비판하고,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를 구별한 칼 만하임(Karl Mannheim)의 논의를 참조해 유토피아가 (만하임이 현실과의 불일치적 성격만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현실을 새롭게 상상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과정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유토피아적 사유가 초월적 존재에 의존하지도 않고 이데올로기의 포로도 되지도 않으면서, 역사 과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사유와 실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Ricœur 1986, 311-313).

이중과제론도 자본주의 극복에 대한 총체적 상을 제시하지 않고 그 과정의 수행성을 강조한다. 물론 이중과제, 즉 적응과 극복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공업화와 발전 자체가 사회주의적 지향과 상충하는 욕망이나 사회 메커니

23) 이중과제론이 식민성 논의를 경유해 처음 제시되었다는 사실(백낙청 1999)은 우연이 아니다.

즘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이나 메커니즘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양자 사이의 선순환을 실현시키기 어렵다. 중국의 사회주의적 실천에서 계급투쟁이 강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계급투쟁을 통한 정치적 동원으로 사회주의에 저해되는 경제적, 문화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구축하고자 했지만,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역사 속에서 확인되었다. 민생주의의 가장 큰 한계도 민생주의 실현을 위한, 그리고 이를 이중과제적 실천으로 본다면 그 과정에 이중과제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데 있다. 쑨원은 소련식 모델이나 계급투쟁을 부정했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쑨원은 자신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면 민생주의를 포함한 삼민주의를 실현하는 데 다른 큰 장애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쑨원은 민권을 혁명이 대의로 내세웠지만 혁명을 실천하면서 지도자와 당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해갔다. 사회주의 실천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사회주의 건설에서 지도적 역할과 민의 참여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쑨원의 민생주의는 사회주의를 창조적으로 해석해 중국의 현실에 적용하는 전통을 세웠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 실천에 내재한 문제도 같이 드러냈다. 이 문제까지 같이 사유할 때 민생주의의 현재적 의의도 더 명확해질 수 있다. 지금 중국의 사회주의 역시 쑨원의 사회주의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 현실화된 것인 동시에 그에 내재하는 한계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현재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것을 사회주의적 지향을 견지하는 정치적 보장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당의 영도와 인민을 주인으로 한다는 방향이 상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혹은 제도는 여전히 사유의 지평 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sup>24)</sup> 이것이 새

24) 최근 중국의 인민주권 실현을 위한 실험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유은하(2020, 55~57)를 참고.

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일지, 아니면 내파를 향하는 것 인지가 문제로 남아 있다. 이는 쑨원이나 중국공산당에게만 존재하는 한계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실천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적 실천의 진전 여부는 이 문제를 여하히 해결해낼 수 있는가에 좌우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백낙청. (1999).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 *창작과비평*, 1999년 가을호: 6-28.
- 백낙청. (2016). 근대, 적응과 극복의 이중과제. 송호근 외. *시민사회의 기획과 도전*. 서울: 민음사.
- 백영서. (2021). *중국현대사를 만든 세가지 시간: 1919-1949-1989*. 파주: 창비.
- 백영서. (2022). 경계를 횡단하는 조소앙과 변혁적 중도주의. 강경석 외. *개벽의 사상사: 최제우에서 김수영까지, 문명전환기의 한국사상*. 파주: 창비: 222-250.
- 유은하. (2020). 인민주권론의 관점에서 본 중국 협상민주주의(協商民主). *Analyses & Alternatives*, 4(1): 39-61.
- 이남주. (2010). 마오쩌둥 시기 급진주의의 기원: 신민주주의론의 폐기와 그 함의. *동향과 전망*, 78호: 215-249.
- 이남주. (2018). 개혁개방 “신시대”와 시진핑(習近平)사상. *동향과전망*. 103호: 303-335.
- 이남주. (2020). 캉유우웨이(康有爲) 대동사상의 형성 과정과 특징. *중국사회과학논총*, 2(10): 56-77.
- 이승휘. (2018). *손문의 혁명*. 파주: 한울아카데미.
- 정태욱. (2015). 손문 평균지권의 자유주의적 기원과 중국 공화혁명에서의 전개과정. *법철학연구*, 18(2): 285-216.
- 조경란. (2003). *중국 근현대 사상의 탐색*. 서울: 삼인.
- 孙中山. (1981). *孙中山全集: 第一卷*. 北京: 中华书局.
- 孙中山. (1982). *孙中山全集: 第二卷*. 北京: 中华书局.
- 孙中山. (1985a). *孙中山全集: 第五卷*. 北京: 中华书局.
- 孙中山. (1985b). *孙中山全集: 第七卷*. 北京: 中华书局.

- 孙中山. (1985c). *孙中山全集: 第八卷*. 北京: 中华书局.
- 孙中山. (1986a). *孙中山全集: 第九卷*. 北京: 中华书局.
- 孙中山. (2011). *建国方略·孙文学说*. 魏新柏 选编. *孙中山著作选编*. 北京: 中华书局.
- 董四代. (1998). 深刻的思考和历史的局限: 简论孙中山的社会主义思想. *历史教学*, 8: 24-27.
- 韩剑锋 (2012). 裕民, 齐民, 新民”-孙中山社会主义思想研究. 南开大学 博士论文.
- 赫坚. (2012). 中国共产党对三民主义认识的演变研究(1921~1949). 东北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 胡漢民(漢民). (1906). 民報之六大主義. *民報*, 3: 1-22.
- 胡绳. (1987). 论孙中山的社会主义思想. *历史研究*, 1: 3-13.
- 黄彦. (1993). 社会主义现实与孙中山的社会主义思想. *广东社会科学*, 3: 66-72.
- κ·拉狄克. (1985). 孙中山的社会政治思想 (1926.3.12.). 安徽大学苏联问题研究所·四川省中共党史研究会编. *1919-1927苏联〈真理报〉有关中国革命的文献资料选1*. <https://www.marxists.org/chinese/radek/mia-chinese-radek-19260312.htm> (Accessed 31 August 2020).
- 李時岳. (1956). 論民生主義—近代中國革命民主派對資本主義的批判, 及其預防資本主義的毒害的主觀社會主義. *史學集刊*, 1: 93-108.
- 李杨. (2013). 孙中山“联俄”: 不得已的权宜之计?. *爱思想*, 2013.3.6., <http://m.aisixiang.com/data/61835.html> (Accessed 31 August 2020).
- 李泽厚. (1994). *中国近代思想史论(修订本)*. 合肥: 安徽文艺出版社.
- 列宁. (2017). 中國的民主主義和民粹主義(1912.7.15.). 中共中央马克思恩格斯列宁斯大林著作编译局. *列宁全集(二版增订版): 21*. 北京: 人民出版社.
- 刘学照. (2002). 重议孙中山的民生史观. *学术研究*, 1: 91-98.

- 毛泽东. (1991). 新民主主义论(1940.1). *毛泽东选集：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 馮自由. (1976). 二民主義與三民主義. *革命逸史：第二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 馮自由. (1906). 民生主義與中國政治革命之前途. *民報*, 4: 1-26.
- 沈渭滨. (2007). “平均地权”本义的由来与演变-孙中山“民生主义”再研究之二. *安徽史学*, 5: 69-74.
- 王德昭. (2011). *孙中山政治思想研究*. 北京: 中华书局.
- 王宏斌. (2000). 西方土地国有思想的早期输入. *近代史研究*, 6: 184-197.
- 夏良才. (1986). 论孙中山与亨利·乔治. *近代史研究*, 6: 43-48.
- 杨奎松. (2008). *国民党的“联共”与“反共”*.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韦杰廷. (1991). 论孙中山民生主义的历史地位. *湘潭师范学院学报*, 12(5): 41-14(+29).
- 伊原泽周 (1991). 孙中山的平均地权论与宫崎民藏的土地均享思想. *历史研究*, 4: 29-41.
- 张海鹏. (2018). 孙中山民生主义理论体系的内在矛盾-兼议孙中山阶级观点问题. *历史研究*, 1: 103-119(+192).
- 朱宏源. (1985). *同盟會的革命理論：【民報】的個案研究*.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堀川哲南. (1974). 民生主義をめぐる民報と新民叢報の論争. *東洋史研究*, 33(1): 63-85.
- 葛建廷. (2010). 中国近代土地改革の一考察: 孫文の土地思想を中心に. *創価大学大学院紀要*, 32: 201-215.
- Jiang, Y. (2012). A Brief History of Chinese Socialist Thought in the Past Century. *Journal of Modern Chinese History*, 6(2): 147-163.
- Lai, C. C. and Trescott. P. B. (2005). Liang Qichao, Sun Yat-sen, and the 1905-1907 debate on soci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2(12): 1951-1962.

Lee, H. (2020). The Changing Roles of Ownership in the Economic Growth in China. *Analyses & Alternatives*, 4(2): 39-70.

Ricoeur, P. (1986). *Lecture of Ideology and Utop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Trescott, P. B. (1994). Henry George, Sun Yat-Sen and China: More than Land Policy Was Involved.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3(3): 363-375.

Manuscript: Sep 15, 2022; Review Completed: Oct 20, 2022; Accepted: Nov 07, 2022
--